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

-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 서 현

#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

-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박 서 현

# 인 준 서

박서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성인 남성과 여성 609명을 대상으로 반사회성 척도, 공격성 척도, 초기 부적응 도식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사회성, 공격성, 초기 부적응 도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반사회성과 공격성 그리고 초기 부적응 도식과 공격성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해 본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매개한 도식은 불신, 특권의식, 유기, 위협, 고립, 부족한 자기 통제, 정서적 억제, 결함, 융합, 엄격한 기준, 의존, 정서적 결핍, 복종, 실패의 설명량이 높은 순으로 밝혀졌다. 셋째,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성별로 검증해 본 결과, 성별로 매개한 도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성 집단에 매개한 도식은 불신, 특권의식, 고립, 유기, 정서적 억제, 부족한 자기 통제, 위협, 결함, 복종, 융합, 정서적 결핍, 의존, 실패 순이었고 여성 집단은 위협, 불신, 특권의식, 유기, 융합, 부족한 자기 통제, 의존, 결함, 고립, 정서적 억제, 엄격한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서의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반사회성, 공격성, 초기 부적응 도식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II. 이론적 배경 .....	6
1. 반사회적 성향 .....	6
1) 반사회적 성향의 정의 및 특성 .....	6
2) 반사회적 성향에 관한 연구 .....	9
2. 공격성 .....	10
1) 공격성의 정의 .....	10
2) 공격성의 유형 .....	11
3) 공격성에 관한 연구 .....	14
3. 초기 부적응 도식 .....	16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정의 및 특성 .....	16
2) 초기 부적응 도식의 기원 .....	17
3) 초기 부적응 도식의 영역 및 하위 도식 .....	18
4) 초기 부적응 도식에 관한 연구 .....	21
4.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 .....	24
5. 반사회적 성향과 초기 부적응 도식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	25
III. 연구문제 및 가설 .....	27

<b>IV. 연구방법</b>	.....	28
1. 연구 대상	.....	28
2. 측정 도구	.....	30
1) 반사회적 성향 척도	.....	30
2) 공격성 척도	.....	30
3) 초기 부적응 도식 척도	.....	31
3. 연구 모형	.....	32
4. 자료 분석 방법	.....	33
<b>V. 연구 결과</b>	.....	34
1. 반사회적 성향과 초기 부적응 도식, 공격성 간의 상관분석	.....	34
2. 반사회적 성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	37
1) 전체 집단	.....	37
2) 남성 집단	.....	43
3) 여성 집단	.....	48
<b>VI. 논의</b>	.....	52
1. 결과 논의	.....	52
2. 제언	.....	6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차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9
<표 2-1> 반사회성, 초기 부적응 도식,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	35
<표 2-2> 반사회성, 초기 부적응 도식, 공격성의 하위 변인 간의 상관 관계 .....	36
<표 3>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	38
<표 4>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하위 도식의 매개 효과(전체 집단) .....	40
<표 5>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남성 집단) .....	44
<표 6>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하위 도식의 매개 효과(남성 집단) .....	45
<표 7>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여성 집단) .....	49
<표 8>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하위 도식의 매개 효과(여성 집단) .....	50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	32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총범죄 발생건수는 196만 6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7.5% 증가하였고 형법범 중 주요범죄 발생 건수도 2007년 42만건으로 전년(35만건)에 비해 19.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절도, 사기, 강도, 폭행·상해 등의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38.8%,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1.2%임을 감안할 때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1위가 <범죄 발생(18.3%)>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4명이 평소 범죄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20명의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2006년 부녀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을 중태에 빠트린 ‘정남규’ 연쇄살인사건, 얼마 전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 잔혹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범죄자 즉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서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 ‘사이코패스’라 부른다. 이른바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양심이 결여된 채 반사회적 성향을 더 뚜렷이 드러내는 사람을 뜻한다. 미국은 연쇄살인범의 90%, 폭력사범의 50%가 사이코패스이며, 이들의 출소 후 재범률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범죄심리학자들이 한 구금(拘禁)시설의 재소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통한 ‘반사회성 성격장애 검사’를 한 결과, 15% 가량이 사이코패스로 진단되어 적지 않은 사이코패스가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반사회적 성향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나타내는 성격 특성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어왔다. MMPI-2 검사에서 반사회성을 측정하는 4번(Pd) 척도를 살펴보면, 가정불화와 권위불화를 경험하며 사회적 침착성이 높고 사회적, 내적 소외감을 느끼는 성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성향의 사람들의 특징이 화를 잘 내고 반항적이고 남들과 대립을 잘 하여 비아냥거리거나 냉소적이며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DSM-IV에 의하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며 충동적이며 공격적이고 반복적으로 육체적인 싸움이나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정의한다.

이처럼 반사회적 성향에 대한 진단 준거 중 많은 항목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 및 욕구 또는 정서 상태’라 정의내린다(김소연, 2008). Buss와 Perry(1992)에 따르면 공격성은 4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분노감, 적대감,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이 그것이다. 분노감은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적대감은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히려는 경향성으로 행동적이거나 혹은 운동적인 요소를 반영한다.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의 특성 중 하나가 공격성이라는 결과가 있으며(김은주, 2005), 임지영(2008)에 의하면 반사회성 성격특질은 모든 공격성, 충동성변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 특성을 가진 대상은 신체공격성과 간접공격성 등이 다른 하위 요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Andrea&Ernest&Barratt, 2004), 양기숙(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살인범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신체공격성과 반사회성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범죄자의 심리학적 특성에 대해 알게 됨으로서 예방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성향이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을 설명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초기 부적응 도식이란 1990년 Young이 제안한 심리도식치료 이론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인지적 요인들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와 환경을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기 위한 참조의 틀로서 기능하며 아동기 시절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Young(1991)은 만성화되거나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식 질문지를 개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16개의 도식은 다음과 같다; 정서적 결핍(Emotional Deprivation), 사회적 소외(Social Isolation), 유기(Abandonment), 불신/학대(Mistrust/Abuse), 실패(Failure to Achieve), 결함/수치심(Dependence/Shame), 위협(Vulnerability to harm), 융합(Enmeshment), 복종(Subjugation), 의존(Dependence/Incompetence), 사회적 부적절감(Social Undesirability), 엄격한 기준(Unrelenting Standards), 자기희생(Self-Sacrifice), 정서적 억제(Emotional Inhibition), 특권의식(Entitlement), 부족한 자기 통제(Insufficient Self-Control).

초기 부적응 도식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반사회적 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도식이 ‘부족한 자기통제’와 ‘사회적 소외’로 밝혀진 연구(Reeves & Taylor, 2007)가 있고 어떤 특별한 초기 부적응 도식과도 관련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Nodahl, Hothe & Haugum, 2005). Pertocelli, Glaser, Calhoun과 Campbell(2001)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반사회성을 포함한 회피성, 수동적-공격성, 자기-패배, 경계선 척도에서 가장 현저한 임상적 범위를 기록한 군집이 유기, 정서적 결핍, 사회적 소외, 엄격한 기준 도식에 해당되었다. 국내에서는 조성호(2002), 김희수(2003), 김윤숙(2005) 등이 관련 연구를 하였는데 각각 편집성 성격특성과 경계선 성

격특성, 강박성 성격장애/회피성 성격장애/자기애성 성격장애/편집성 성격장애, 경계선적 성격 특성만을 연구한 것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최근 2008년 대학생을 표본으로 한 하용수의 연구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자기희생, 엄격한 기준, 처벌 도식을 제외한 모든 초기 부적응 도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불신/학대 도식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초기 부적응 도식이 공격성의 하위 변인인 적대감과 상관을 보인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다. 조성호(2002)는 초기 부적응 도식 중에서 위협, 정서적 억제, 자기 희생 등 3개의 부적응 도식들이 회귀식에 투입되어 전체 변량의 32.7%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지영, 손정락(2007)은 적대감 척도가 유기, 사회적 소외, 결함, 실패, 의존, 위협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변인과 유사한 변인들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비행과 범죄에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학대 경험(신혜영, 2008), 사회적 지지와 부모양육행동(강현숙, 2008), 가정의 심리적 환경(신지원, 1997) 등과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낸 김영선(2000)의 연구, 그리고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이 낮다는 김성애(2008)의 연구가 그것이다. 초기 부적응 도식이 아동기 시절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린 시절의 양육환경에 대한 선행 연구들 역시 본 연구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기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초기 부적응 도식은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심리학자로서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내담자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파악하고 도식에 초점을 맞춘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개인 치료에서 뿐만 아니라 재소자 재범 방지 치료 프로그램, 잠재비행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공격성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II. 이론적 배경

### 1. 반사회적 성향

#### 1) 반사회적 성향의 정의 및 특성

반사회적 성향(antisocial personality)이란 사회적응의 여러 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비이성적, 비도덕적, 충동적, 반사회적 또는 범죄적 행동, 죄의식없는 행동 또는 남을 해치는 행동을 나타내는 성격을 말한다(이규휘, 2009). 그러나 Kuncze와 Anderson(1976, 1984)은 주장성(assertiveness)을 반사회성의 기본 차원이라 생각하며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경미하게 높을 경우에는 자기 주장적이고 솔직하며 모험적이고 진취적이라 표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반사회적 성향에 대한 정의는 부적응적인 성격 특성을 언급한다. 자신과 자신의 이익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소에 친한 사람과도 종종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으로 이 성격을 지닌 사람은 범죄에 매력을 느끼고 법과도 자주 충돌을 빚는다(송현저, 1994). 또 자신이 저지른 비행은 정당화하여 받아들이고 힘이 없는 것을 비통하게 느끼며 방해물을 극복하면 자기 능력을 자랑하길 좋아한다(Forgus & Shulamn, 1979). 또한 반사회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신뢰롭지 못하고 무책임하며 사회적, 직업적 영역에서 지속적인 성취가 불가능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냉정하고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또한 일상 생활에서도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권위적 인물과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김영환, 오상우, 홍상환, 박은영, 2002). 또 다른 주된 특징은 분노감, 충동성, 정서적 피상성 및 예측불허성을 보인다. 사회적으로 비순응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규범에 대하여 특수하게는 권위적 대상에 대하여 거부적이다. 그들은 권위적 대상에 대해 뿌리

깊은 적개심과 분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과거에 반사회적 행위를 범한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 같은 적개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내향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서지현, 2005).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는 반사회적 성향이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하여 성인기에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져 부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김은주(2005)는 연구에서 성향이 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장애로 구분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개인의 지속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양식이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서 심하게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양식은 다음의 4개 영역 즉 인지, 정동, 대인관계 기능, 충동 조절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 둘째, 고정된 행동 양식이 융통성이 없고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 전반에 넓게 퍼져 있어야 한다. 셋째, 고정된 행동 양식이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의 장애를 초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식이 변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발병 시기는 적어도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는 어릴 때부터 비행, 무단결석, 규칙위반, 거짓말, 무모한 행동, 문화예술 파괴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보인다(신희천, 신은향,2000). 또한 그럴듯한 겉치레를 하며 말슴씨도 그럴싸하게 유창하고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범죄, 비행, 공격적 행동이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감옥이나 법정 같은 곳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DSM-IV에 제시되어 있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A. 15세 이후에 시작되고 다음에 열거하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광범위한 행동양식이 다음 중 3개 (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 (1)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하고 구속 당할 행동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 (2)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을 사용한다거나 타인들을 속이는 것과 같은 사기
  - (3) 충동성 또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함
  - (4)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에서 드러나는 과흥분성(자극과민성)과 공격성
  - (5)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 (6)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
  - (7) 자책의 결여,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 행위를 하 고도 무관심하거나 합리화 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 B. 연령이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C. 15세 이전에 발생한 품행 장애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 D. 반사회적 행동이 정신분열증이나 조증 삽화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인 반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혹은 사이코패스 등의 특정 사람들의 법을 위반하는 범죄적인 행동이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의 ‘반사회적 성향’이 아니므로 MMPI-2 4번 척도 중에서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의 ‘반사회성’이란 ‘가정불화와 권위불화를 경험하고 사회적 침착성과 사회적, 내적 소외를 느끼는 성향’으로 정의한다.

## 2) 반사회적 성향에 관한 연구

반사회적 성향은 ‘비행’, ‘문제 행동’, ‘범죄’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Seidman 과 동료들(1991)의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공유 활동의 정도, 사회적 지지, 또래의 수용도, 그리고 또래의 가치관을 각각의 차원으로 하여 여섯 개의 상이한 프로파일을 보이는 군집을 얻었는데 그 중 ‘반사회적-어울리는(antisocial-engaging)’의 군집에 대해 설명하였다. 반사회적 어울리는(antisocial-engaging) 집단의 아동들이 전체 군집 중 가장 반사회적인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우울 수준은 낮았으나 비행 수준은 가장 높게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안숙(2003)의 연구에서도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 공유 활동 정도, 그리고 또래의 가치관을 변인으로 하여 군집 분석을 한 결과, 5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졌고 이 중 ‘갈등 많은-반사회적 또래(hassling-antisocial peer)’ 군집은 또래들의 가치관이 가장 반사회적이며 또래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가장 낮으면서 또래들 사이에서의 스트레스는 가장 높게 지각하는 유형으로 아동의 적응에 있어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신중순(1991)은 고등학생들이 보여주는 문제 행동에 3개 요인을 밝혔는데 자기중심성과 허황성과 더불어 반사회성이 포함됨을 밝혔다. 송현저(1994)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반사회성이 강한 학생은 문제아이거나 동기결여자로 알려져 있다(Forgus & Shulman, 1979)고 밝혔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의 연구 결과 역시 반사회성과 시험 부정행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조현춘(1994)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만을 보았을 때에는 가정의 응결력과 전통주의적 경향이 절대적으로 청소년의 반사회성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반사회성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상습비행에 속할 승산비가 1.45배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양종국, 김충기, 2002). 유아를 대상으로 한 손혜숙(2000)의 연구에는 어머니와 교사 모

두에게 안정 애착된 유아들이 불안정 애착된 유아들보다 친사회성이 높게 나타났고 반사회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폭력범죄자를 반사회성이 강한 자들과 반사회성이 낮은 자들로 나누어 두 집단 간에 음주문제를 다룬 연구에서는 음주는 반사회성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김명석, 서경현,2003). 박소은(2009)의 연구에서는 정신 장애 성향의 유형 중 정신 분열 증 성향과 반사회성 성향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산 범죄보다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2. 공격성

### 1) 공격성의 정의

공격성(aggression)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이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박덕규(1986)는 가정, 학교,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개인이나 사물에 대해 가해하는 행위로서 특히 개인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위축감을 갖게 하는 의식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로 정의 내렸으며 모든 폭력행위, 즉 싸움, 격투, 살인, 공갈, 협박, 비웃음, 격한 목소리, 불안한 행위와 그와 같은 행위에 동반되어 표현되는 감정, 열광, 분노, 원한, 증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정은자,2005). 공격성을 ‘다른 유기체에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반응’ 이라고 정의한 Buss(1961)의 정의,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화나게 하는 행동’이라고 한 Eron(1987)의 정의, ‘일반적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위’ 라고 정의한 Feshbach(1963)의 정의는 공격성을 단지 관찰할 수 있는 특성 및 그 반응의 효과만을 가지고 정의한 것이다. 이에 반해 행위자의 의도를 함께 고려한 개념으로 공격성을 정의하기도 한다. Bandura(1973)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하는 개인의 성향으로서 타인에게 해를 가할 의도를 가진 생각이나 정서 그리고 이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생명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정의한 연구도 있다(Shaffer,1993; Vasta, Haith & Miller, 1992).

또한 임지현(1988)은 부정적인 신체적 정서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행위 및 욕구라 정의하였고 홍정주(1988)는 신체적 혹은 정서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양기숙(2007) 역시 공격성을 ‘억압, 분노, 적대감 때문에 언어나 신체적 표출을 통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최근의 학자들은 신체적 공격이든 언어적 공격이든 공격행동이 일어나기까지는 인지적인 차원인 분노감과 정서적인 차원인 적대감 등의 요소가 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나 상처를 입혔나 보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에 초점을 둔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다(이규미, 1999). 즉 공격성이라는 용어는 외현적인 행동 뿐 아니라 의도나 동기까지도 포함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 뿐 아니라 지각된 의도, 행동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인 가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해적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미경, 2002).

## 2) 공격성의 유형

공격성의 유형에 대한 논의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신지원(1997)의 연구에 의하면 Buss와 Durkee(1957)는 공격성의 유형을 종류에 따라 폭행,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원한, 의심, 언어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는데 폭행,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을 합쳐 공격성이라 하고 원한과 의심을 합쳐 적의성이라 할 수 있으며 적의성은 공격

성과 일치될 수도 있지만 공격성 반응의 부분처럼 개방적으로 언어화되지 않는 지속적인 태도로서 내적으로 강화된 공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Buss(1961)는 공격행동에는 신체적-언어적, 능동적-수동적, 직접적-간접적인 세 개의 차원이 있으며 이 세 차원들의 상이한 결합에 따라 공격성은 8가지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황정규(1965)는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으로 구분하고 신체적 공격에는 힘으로 반대를 극복하는 것, 싸우는 것, 보상에 대해 보복하는 것, 대상에게 공격을 가해서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것 등이 포함되며,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Rule과 Nesdale(1976)은 공격성을 분노적 공격성과 비분노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격 대상에게 신체적인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신체적 공격성과 상대방에게 심리적,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언어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언어적 공격성, 공격성을 유발시킨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직접적 공격성, 그리고 공격성을 유발시킨 사람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하거나 일정한 대상이 없는 간접적 공격성으로 공격성을 구분하였다. Farodi와 Thome(1977) 역시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동일하게 설명하였다. Kauffman(1981)은 표현방법에 따라 수동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자기 회피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수동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만 겉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수동적으로 자신의 공격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고집, 반대, 꾸물거리기, 거부적 태도, 부정적 반응, 상대방 무시 등의 행동을 말한다. 직접적 공격성은 언어적 공격성(소리지르기, 놀리기, 욕하기, 시비걸기, 말다툼하기, 거친 태도로 명령하기, 남을 모욕하기)과 신체적 공격성(위협하기, 발로 차거나 때리기, 다른 사람에게 물건 던지기, 멱살잡기, 물건 파손 혹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자기 회피적 공격성은 공격적 행위가 자기에 가해지는 행동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물어뜯

는 등의 가학적 행동을 의미한다. 양기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Feshback(1982)는 타인을 손상시키려는 궁극적인 동기를 갖고 행하는 적대적 공격성, 타인을 손상시킬 목적보다는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도구적 공격성, 공격 행동에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정서적 공격성으로 구별하였다. 정서적 공격성은 좌절사건이나 상황, 약물, 피로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Dodge와 Coie(1987)는 공격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지각된 위협에 대한 보복으로서의 반응적 공격성과 둘째, 도구적 공격성처럼 궁극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 의도된 행동(협박, 지배, 강요) 등을 주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반응적 공격성에서의 가해자는 자신을 공격한 대상에 대해 공격적 행위를 먼저 시작하거나 목표로 삼는 대상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심한 공격을 가하고 자신들의 공격행위에 대해 강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 반면 주도적 공격성은 외부에서 위협이나 공격행동을 받지 않았을 때에도 가해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공격 행위를 시도하는 특징이 있다. 원한에 의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벌이는 강도 행각 등을 주도적 공격성의 예로 들 수 있겠다. 강현숙(2008)의 연구에 의하면 Crick(1995)은 여아의 공격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고 여아들에게 드러나는 공격성 유형의 하나로서 관계적 공격성의 개념을 소개했다. 외현적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협박과 같은 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한 개념이며 관계적 공격성은 또래 관계 혹은 소속감과 같은 감정에 손상을 입히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행동들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Nelson & Crick, 2002). Kostelnik, Soderman 및 Gregory(2002)는 공격성의 유형을 우연적 공격성, 표현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 적대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우연적 공격성은 어떤 의도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고 표현적 공격성은 우연히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신체적 행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도구적 공격성은 사물이나 영역, 권리를 얻기 위한 신체적 분쟁에서 누군가를 해치게 될 때 나타나는 행동이며 적대적 공격성은 고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은 모욕이나 상처에 대한 보복이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고의적인 공격이다. Buss와 Perry(1992)에 따르면 공격성은 4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이다. 이 중에서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히려는 경향성으로 행동적이거나 혹은 운동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분노감과 적대감은 정서와 인지 차원에 해당된다. 분노감은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적대감은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특성에 대해, Buss와 Perry(1992)에 따라 공격성을 4가지 하위 변인 즉 신체공격성, 언어공격성, 적대감, 분노감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하고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한 AQ-K 검사에서 측정된 점수를 공격성으로 정의한다.

### 3) 공격성에 관한 연구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문제 행동’ 과 관련하여 연구된 것이 많다. 부모로부터 경험한 폭력과 부부간 폭력 관찰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남아의 공격성이 아버지의 폭력을 관찰 것과 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고(노치영, 1988), 아동의 공격 성향은 가정에

서의 사회상승주의, 가족 간의 상호 태도, 자율-타율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남학생에 있어 학년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 공격성향에서의 차이를 본 연구결과도 있다(신지원, 1997). 박정민(1997)은 나르시시즘 성향과 지배성, 공격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현실과 맞지 않게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지배성과 공격성을 조장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김영선(2000)은 개인이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만족하다고 느낄수록 공격성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특히 공격성의 하위 변인 중 적의적 공격성 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한다. 김미경(2002)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하위 요인 중 직접적 공격성이 가장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중독정도가 높은 경향을 알 수 있고, 신혜영(2003)은 학대의 하위 유형 중 신체적 학대가 공격성과 대인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성애(2008)의 연구에서는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유아 집단에서 양육자와의 애착이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양육자의 애착에 영향을 받은 정서조절능력은 결과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강현숙(2008)의 연구에서 잠재 비행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 사회적 지지, 감정 이입 등의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들을 다양하게 살펴본 결과 이들 변인들 중 잠재비행 청소년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 관계로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또래 관계 특히 비행친구나 비행 집단과의 어울림이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영진(2008)은 공격성 하위 요인 중 흥분성이 결손 가정 아동에게 유의미하게 높았고 부자 가정의 아동이 모자 가정의 아동보다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전미란(2007)은

해결 중심 상담을 기반으로 한 집단 상담을 통해 공격성 감소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공격성 점수 평균은 감소하였으나 아동 개인별로는 분노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고, 김주희(2007)는 인지행동수정을 적용한 초등학생들이 현실요법을 적용한 초등학생들보다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은청(2008)의 연구에서는 만화기법을 이용한 집단 미술 치료가 정서 장애 아동의 대인관계향상과 공격성 감소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초기 부적응 도식

####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정의 및 특성

초기 부적응 도식은 Young(1990, 1999)이 명명한 도식으로 유해한 아동기 경험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발달한 심리 도식을 뜻하며, 자기 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으로 생애 초기에 시작되어 일생 동안 반복되는 것이다.

초기 부적응 도식의 특성은 첫째, 대부분의 초기 부적응 도식은 환경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신념과 감정들이다. 이러한 도식들은 절대적이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핵심신념(core belief)’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 연속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에 대단히 저항적이다. 도식은 생애 초기에 발달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자기 개념과 환경 개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도식은 아주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정보가 나타나더라도 도식을 수정하기 보다는 그 도식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왜곡한다. 도식의 변화가 너무 두려운 일이므로 도식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인지적 전략들을 사용하게 된다. 셋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심각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의 심리적 고통, 부적절한 대인관계 및 업무수행, 약물중독, 폭식증, 신체형 장애들의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때로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치료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가 계속 재발하게 된다. 넷째, 초기 부적응 도식은 특정 도식과 관련된 외부 사건에 의해 활성화된다. 즉, 외부 사건과 특정 도식의 상호 작용에 따라 사람들은 분노, 우울, 슬픔, 수치심 등의 경험을 하게 된다. 다섯째, 초기 부적응 도식이 활성화되면 강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여섯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과의 역기능적 경험과 타고난 기질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본다. 즉 아동기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부적응적인 도식이 발달하게 된다. 일곱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율성, 관계 형성, 자기 표현 수용, 자기 한계, 자발성 등의 자신의 핵심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도식은 욕구 좌절을 통해 발전되기 때문이다(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 2) 초기 부적응 도식의 기원

이봉남(2009)의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아동기의 채워지지 않은 핵심적 정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다. Young은 다섯 가지 인간의 기본 정서 욕구(타인과의 안정 애착, 자율성·유능감·정체감, 타당한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자유, 자발성과 유희, 현실적 한계 및 자기-통제)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둘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생애 초기의 유해한 경험들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초기 아동기일 때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오는 환경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인데 인간의 핵심적 정서 욕구가 심하

게 좌절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충족되었을 때, 외상 경험을 했을 때 혹은 중요한 타인을 내면화했을 때 초기 부적응 도식이 형성된다고 하겠다. 셋째, 개인의 타고난 정서적 기질을 들 수 있다. 같은 부모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가진 특징적인 기질이 독특한 환경에 선택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폭력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외향적인 아이는 그렇지 못한 내성적인 아이보다 폭력에 더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극단적인 기질과 정신 병리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에서는 특정한 기질유형은 특정한 성격장애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한 부적응적 대처방식은 도식에 대항하기 위해 내담자가 생애 초기에 발달시킨 기제이며 이것은 도식의 영속화를 가속화시킨다.

### 3) 초기 부적응 도식의 영역 및 하위 도식

Young(1999)이 제안한 18개 도식들은 5개의 도식 영역으로 분류되는 데 다음과 같다. 제 1영역은 단절 및 거부 영역으로서 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정서적 결핍, 결함/수치심, 사회적 분리/소외 도식이 이에 해당된다. 제 2영역은 손상된 자율성과 수행 영역이며 의존/무능감, 위험취약성, 비분리, 실패 도식이 해당된다. 제 3영역인 손상된 한계 영역에서는 특권의식/과대자아, 불충분한 자기 통제/자기 훈련 도식이 속한다. 제 4영역인 타인 지향성 영역에는 복종, 자기희생, 승인추구/인정 추구 도식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5영역인 과잉 경계와 억제 영역에는, 부정성/비관주의, 정서억제, 무자비한 기준/과도한 비판, 처벌 도식이 속한다. 언급된 18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는 질문지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16개의 도식을 측정하는 도식질문지는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 사용되는 초기 부적응 도식 척도는 하준명(2006)이 변안한 것,

이미열(2006)이 번안한 것, 조성호(2001)가 개발한 한국판 도식 질문지 등이 있다. 먼저 하준명(2006)이 번안한 것은 Young(1999)이 만든 YSQ(Young Schema Questionnaire)척도이다. 각 문항은 ‘완전히 다르다’에서부터 ‘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의 6점 척도이며 총 90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 부적응 도식이 뚜렷함을 나타내며 5개 상위영역하의 18개 하위 도식척도(정서적 결핍, 유기,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결합/수치심, 실패, 의존/무능감, 위협, 융합, 복종, 자기희생, 정서적 억제, 엄격한 기준, 특권의식, 부족한 자기통제, 승인-추구, 부정성, 처벌)로 구성되며 각 하위 도식척도는 5문항으로 되어 있다. 조성호(2001)가 개발한 한국판 도식 질문지는 Young(1990)이 개발한 205문항의 도식 질문지(Schema Questionnaire, 1990, 1994, 1999)를 기초로 하였고 173문항에 16개(18개 요인 중 승인-추구, 처벌 제외)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척도이다. 그리고 이미열(2006)이 번안한 것 역시 Young(1999)의 YSQ-SF를 번안한 것으로 75문항에 15개(18개 요인 중 승인-추구, 비판주의, 처벌 제외)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각 문항 진술문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따라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YSQ-단축판(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을 이미열(2006)이 번안하고 연구자가 도식의 명칭을 다시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15개의 하위 도식을 모두 살펴본다.

- ① 정서적 결핍- 자신의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 즉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싶은 정상적인 소망이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다.
- ② 유기- 자신에게 지지와 연결을 제공하는 대상이 불안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지각하거나 자신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나타낸다.

- ③ 불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고, 학대하고 모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④ 고립-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남들과 다르며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고 느낀다.
- ⑤ 결함- 자기 자신을 결점이 있고 나쁘고 열등하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만약 남들이 이런 결함을 알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 도식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비난이나 비판, 거절에 과민하고 남들과의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
- ⑥ 실패- 자신은 무능하고 이미 실패한 실패자이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며 자신이 동료들에 비해 성취의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믿는다.
- ⑦ 의존- 다른 사람들의 상당한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일상적인 책무를 유능하게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종종 무력감으로 드러난다.
- ⑧ 위협- 끔찍한 재난 즉 심각한 질병에 걸리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타인으로부터 해침을 당하는 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며 자신은 그 재난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과장된 공포를 지니고 있다.
- ⑨ 융합- 충분한 개별화나 정상적인 사회적 발달을 이루지 못한 채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비롯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중요한 타인과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 ⑩ 복종-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통제권을 내어주고 자신의 선호, 결정, 욕구 등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⑪ 자기 희생-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의 만족은 희생한 채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부가적인 짐이나 부담을 지면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 ⑫ 정서적 억제- 자발적인 행동과 느낌, 의사소통을 억제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거나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노는 물론, 기쁨이나 애정, 성적 흥분과 같은 긍정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정서적 억제 도식이 있는 경우 취약성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를 무시 하는 대신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 ⑬ 엄격한 기준- 비난이나 수치심을 모면하기 위해 매우 높은 기준을 달성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완벽주의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분으로 표현되며 시간과 효율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⑭ 특권의식-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자신은 보통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용되는 상호성의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 ⑮ 부족한 자기 통제-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의 자기 통제나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4) 초기 부적응 도식에 관한 연구

초기 부적응 도식에 대한 Freeman(1999)의 연구에서는 Young의 심리 도

식 이론을 비합리적인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을 설명하는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Freeman은 초기 부적응 도식이 약하게 드러날수록 개인의 대인관계 적응이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ertocelli, Glaser, Calhoun과 Campbell(2001)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반사회성을 포함한 회피성, 수동적-공격성, 자기-패배, 경계선 척도에서 가장 현저한 임상적 범위를 기록한 군집이 유기, 정서적 결핍, 사회적 소외, 엄격한 기준 도식에 해당되었다. Harris&Curtin(2002)의 연구에서는 4개의 도식(결함/수치심, 부족한 자기 통제, 취약성, 무능/열등감)이 부모에 대한 지각과 종합적인 우울 증상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반사회적 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도식이 ‘부족한 자기통제’와 ‘사회적 소외’로 밝혀진 연구(Reeves & Taylor, 2007)가 있고 어떤 특별한 초기 부적응 도식과도 관련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Nodahl, Hothe & Haugum, 2005).

국내 연구로는 조성호(2001a)가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Young이 제안한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 중 15개가 그 요인들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05문항 중 173문항이 도식 질문지의 16개 요인에 포함되고 나머지 32문항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한국판 도식 질문지의 16개 요인은 실패/무능, 정서적 지지 결여, 절대기준/완벽, 비분리. 예속/굴종, 불신, 내성취약, 배려/희생, 결함, 고립/단절, 의존, 상실우려, 파국, 충동/분노, 자기우월, 몰락 등이다. 또한 한국판 도식 질문지의 타당화의 일환으로 대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에 따라 방어 유형과 대인관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조성호, 2001b). 연구 결과 방어 유형에 있어, 타인에게 ‘배려/희생’ 적이되 ‘예속/굴종’ 되지 않고 ‘내성취약’ 이 높고 ‘자기 우월’ 이 높은 사람들은 적응적 방어 유형을, 반면에 타인과 ‘고립/단절’되거나 ‘예속/굴종’되어 있고 ‘충동/분노’가 많으며 ‘내성취약’ 이 높은 사람들은 부적응적

유형의 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 유형에 있어서는,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고 타인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배려/희생적이지 않으며 타인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냉담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고 타인에게 배려/희생적이며 스스로를 결함이 없고 우월한 존재로 지각하며 내적인 충동/분노가 적은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온화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Young(1990)의 이론에 대한 경험적 지지를 제공하며 초기 부적응 도식을 이해함으로써 개인들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을 한층 더 폭넓고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윤숙(2005)은 정서지지결여, 불신, 결함, 고립/단절, 상실 우려, 충동/분노의 부적응 도식이 애착과 경계선적 성격 특성 사이를 완전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일지(2005)의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 스트레스, 적대적 자동적 사고,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편집성향과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도식이 스트레스와 상호 작용하며 편집성향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도식이 적대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를 거쳐 편집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우울 증상의 경우 역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를 거쳐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기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희연(2006)의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요인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에 취약할수록 도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차에 따른 초기 부적응 도식, 생활 스트레스,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하혜신(2007)의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영역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또래 관계 학교 스트레스는 반추와 파국화를 매개로 하여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학생의 연구 모델과 의존/무능감,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영역의 부적응 도식과 학업 관련 학교 스트레스는 반추와 파국화를 매개로 하여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남학생의 연구 모델 또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불안정 애착과 결혼 만족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정서적 결핍, 유기,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결합/수치심, 실패, 의존/무능감, 정서적 억제, 부정성/비관주의)의 매개 효과가 밝혀진 연구가 있었다(석지은, 2008). 이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매개한 도식이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집단에 매개한 도식은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도식이었고 여성 집단에 매개한 도식은 정서적 결핍, 유기, 사회적 고립/소외, 결합/수치심, 실패, 위협에 대한 취약성, 정서적 억제, 부정성/비관주의, 처벌이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경험, 심리 도식 및 섭식 귀인 양식이 섭식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박윤선(2009)은 과식 상황에 대한 귀인과 엄격한 기준의 상호작용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와 부족한 자기 통제의 상호작용이 정서적 섭식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 4.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의 관련 연구로서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을수록 인지적 회피 대응 전략을 사용하는 남자 청소년이 더 공격적이었고 반사회적 성향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력이 큰 두 번째 변수로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결과를 나타낸 연구가 있다(김현수, 김현실, 2004). 보호 관찰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곽선영(2005)의 연구에서는 PAI 검사를 이용, 공격성과 반사회성 특징에서 각각 3가지씩의 하위척도를 통해 재범자와 비재범자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공격성과 같은 경우는 공격적 태도, 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을 포함하고 있고 반사회성은 반사회적 행동, 자기중심성, 자극추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위 척도에서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적인 행동에 관한 전 반적인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공격적 태도, 신체적 공격 점수에 있어 재

범자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반사회적 행동 척도 역시 재범자 집단이 비재범자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기숙(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살인범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신체공격성과 반사회성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들의 특성 중 하나가 공격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김은주, 2005) 임지영(2008)에 의하면 반사회성 성격특질은 모든 공격성, 충동성변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PAI 신체적 공격, BDHI 폭행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EIS 행동통제결함, PAI 신체적 공격, BIS 무계획 충동성, BDHI 언어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 우울과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이규휘(2009)의 연구에서는 ‘분노 경험’에 있어 반사회성 성격장애 집단이 우울집단과 통제집단보다 높았고 분노 표현 양식 중 ‘분노 표출’에 있어서도 반사회성 성격장애 집단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공격성의 하위 척도를 ‘분노감, 적대감, 신체공격성, 언어공격성’으로 나누어 다룬 논문은 드문 편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반사회적 성향과 하위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의 4가지 하위 척도에 관해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 5. 반사회적 성향과 초기 부적응 도식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초기 부적응 도식의 연구 중 반사회적 성향 혹은 공격성과 관련한 논문으로 조성호(2002)의 연구가 있다. 그는 초기 부적응 도식 중에서 과묵, 충동/분노, 배려/희생의 도식들이 ‘적대감’을 32.7% 설명한다고 하였다. 하용수(2008)의 연구에 따르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자기 희생, 엄격한 기준/과잉 비판, 처벌 도식을 제외한 모든 초기 부적응 도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그 중에서 불신/학대 도식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 고립, 실패, 의존, 위협에 대한 취약성 도식이 '적대감' 과 높은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대감이 여러 도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이지영,손정락, 2007).

초기 부적응 도식이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역기능적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며 아동기 시절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조성호, 2002)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애착이 반사회성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서지현, 2005)와 지지적-활동적 유형과 반사회성이 부적 상관을 나타낸 연구(정안숙, 2003)도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또한 초기 부적응도식의 하위 변인과 유사한 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연구 가설을 지지한다. 교정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사회적 행동의 심각도를 가장 잘 예측해주는 기질과 성격차원이 위협 회피와 연대감으로 나타난 연구(정선주 외, 2002), 사회적 지지와 부모양육 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강현숙, 2008)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낸 김영선(2000)의 연구, 그리고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이 낮다는 김성애(2008)의 연구가 그것이다.

즉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에 대해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반사회적 성향이 어떤 도식을 통하여 공격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게 된다면, 도식을 활용한 심리치료나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반사회적 성향과 초기 부적응 도식, 공격성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가?

가설 1-1. 반사회적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초기 부적응 도식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반사회적 성향이 초기 부적응 도식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2-1. 반사회적 성향은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반사회적 성향과 공격성을 매개한다면, 성별로 매개하는 특정 하위도식이 있을 것이다.

## IV.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 남녀 20대부터 60대까지를 대상으로 2009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650부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 631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미완성된 질문지를 제외시키고 609부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남성이 309명, 여성이 300명으로 남성 대상자가 더 많았다. 연령은 20대가 205명, 30대가 219명, 40대가 106명, 50대가 68명, 60대가 11명으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은 199만원이하 128명, 200~349만원 230명, 350~499만원 128명, 500만원이상 123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최종 학력은 중졸이하 5명, 고졸 74명, 전문대졸 66명, 대졸 276명, 대학원졸 53명, 대학 재학 중인 대상자가 135명으로 대졸 대상자가 전체의 45%가량을 차지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구분	사례수(N=609)	%
성별	남성	309	50.7
	여성	300	49.3
연령	20대	205	33.7
	30대	219	36.0
	40대	106	17.4
	50대	68	11.2
	60대	11	1.8
가정의 월수입	199만원 이하	128	21.0
	200~349만원	230	37.8
	350~499만원	128	21.0
	500만원 이상	123	20.2
학력	중졸이하	5	8
	고졸	74	12.2
	전문대졸	66	10.8
	대졸	276	45.3
	대학원졸	53	8.7
	대재	135	22.2

## 2. 측정 도구

### 1) 반사회적 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MMPI-2의 4번 척도(Psychopathic Deviate, Pd)를 사용하여 반사회적 성향을 측정한다. 문항수가 총 39문항으로 실제 Pd 척도를 측정하는 42문항에서 반사회적 행동(ASP2)에 속하는 3문항을 제외한 것이다. 이는 공격성과 중복되는 성격의 행동 척도를 제외함으로써 반사회적 성향을 변인으로 한 본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39문항 중 긍정적 문항이 17문항(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9, 30, 38, 39), 부정적 문항이 22문항(1, 2, 3, 4, 5,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1, 32, 33, 34, 35, 36, 37)으로 제시되어 긍정적으로 제시된 문항은 반사회적 성향 점수 측정에서 역산된다. 이 척도는 2점 척도로 ‘그렇다’는 1점, ‘아니다’는 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반사회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67로 나타났다.

### 2) 공격성 척도

AQ는 분노, 적대감, 공격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어 오던 BDHI(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으며 BDHI의 문항 중 일부를 차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항들을 추가하여 만들어졌다. Buss와 Perry(1992)는 BDHI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낮고 요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 AQ(Aggression Questionnaire)를 개발하고 다양한 성격특질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Q를 서수준, 권석만(2002)이 변안하여 만든 것이 AQ-K(Aggression

Question-Korea version : AQ-K)이다. 신체적 공격성(9문항)과 언어적 공격성(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 등의 4개 하위척도 27문항(역코딩 문항:7, 18)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적 공격성 문항은 물리적 폭력에 관한 의도 및 행동을 측정하며 언어적 공격성 문항은 논쟁이나 말싸움에 대한 의도 및 행동을 측정하고 분노감 문항은 정서적인 분노 경험과 그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적대감 문항은 타인에 대한 인지적 경계심과 불편한 느낌을 측정한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하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공격성 .75, 언어적 공격성 .74, 분노감 .71, 적대감 .81(총점=.86)로 나타났다.

### 3) 초기 부적응 도식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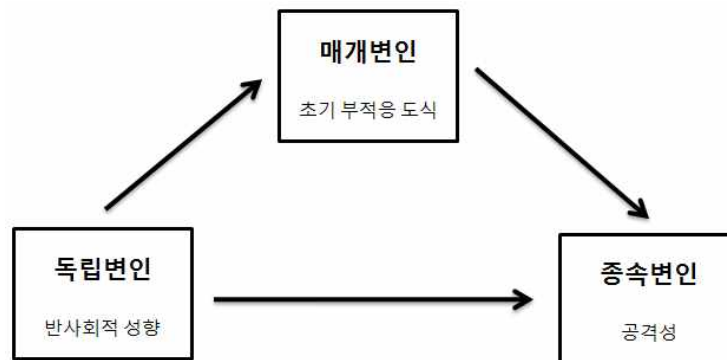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Young(1999)이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성격장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기능적 신념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발한 75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도식 질문지(YSQ-SF)를 이미엘(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한다. 이 척도는 75문항에 15개(18개 요인 중 승인-추구, 비관주의, 처벌 제외)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각 문항 진술문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따라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된다. 15개의 각 요인들은 정서적 결핍, 유기, 불신, 고립, 결합, 실패, 의존, 위협, 융합, 복종, 자기희생, 정서적 억제, 엄격한 기준, 특권 의식, 부족한 자기 통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도식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는 조성호의 연구에서 평균 .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정서적 결핍 .90, 유기 .86, 불신 .84, 고립 .91, 결합 .89, 실패 .89, 의존 .89, 위협 .81, 융합 .86, 복종 .84, 자기희생 .78, 정서적 억제 .80, 엄격한 기준 .83, 특권 의식 .76, 부족한 자기 통제 .83(총점=.96)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공격성을 종속 변인으로 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되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 4. 자료 분석 방법

수거된 설문자료의 통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SPSS windows16.0 을 사용하였다.

- 1) 세 변인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반사회적 성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매개변인 투입 후의 독립변인의 설명량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V. 연구 결과

### 1. 반사회적 성향과 초기 부적응 도식, 공격성 간의 상관분석

반사회적 성향(이하 반사회성이라 칭함), 초기 부적응 도식,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각 변인은  $p < .01$  수준에서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반사회성 그리고 초기 부적응 도식 전체와 하위도식 모두 공격성과 정적 상관(반사회성  $r = .450$ ,  $p < .01$  초기 부적응 도식 전체  $r = .483$   $p < .01$ )을 보였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하위 도식은 불신( $r = .471$ ,  $p < .01$ )이었고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하위 도식은 자기희생( $r = .159$ )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성과 초기 부적응 도식(하위 도식 포함),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는 <표 2-1>과 같다.

<표 2-1> 반사회성, 초기 부적응 도식,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1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3
1 반사회성	1																	
2 도식 전체	.444**	1																
2-1 정서적 결핍	.330**	.579**	1															
2-2 유기	.377**	.730**	.487**	1														
2-3 불신	.392**	.760**	.430**	.599**	1													
2-4 고립	.382**	.778**	.580**	.588**	.626**	1												
2-5 결함	.380**	.794**	.504**	.619**	.603**	.734**	1											
2-6 실패	.260**	.687**	.364**	.432**	.394**	.521**	.590**	1										
2-7 의존	.298**	.756**	.324**	.525**	.481**	.542**	.598**	.685**	1									
2-8 위협	.347**	.773**	.363**	.520**	.586**	.536**	.588**	.568**	.638**	1								
2-9 융합	.341**	.676**	.264**	.433**	.504**	.438**	.501**	.380**	.544**	.551**	1							
2-10 부족	.300**	.822**	.422**	.550**	.560**	.590**	.620**	.596**	.687**	.629**	.609**	1						
2-11 자기회생	.204**	.551**	.220**	.290**	.347**	.289**	.293**	.284**	.312**	.384**	.337**	.492**	1					
2-12 정서적 억제	.321**	.806**	.460**	.553**	.564**	.639**	.596**	.526**	.543**	.584**	.508**	.654**	.486**	1				
2-13 엄격한 기준	.120**	.434**	.084**	.200**	.342**	.185**	.204**	.121**	.151**	.270**	.210**	.265**	.367**	.315**	1			
2-14 특권의식	.247**	.658**	.299**	.395**	.500**	.440**	.436**	.322**	.367**	.413**	.395**	.442**	.381**	.525**	.462**	1		
2-15 부족한 자기통제	.362**	.695**	.269**	.456**	.442**	.486**	.506**	.475**	.563**	.509**	.467**	.545**	.286**	.522**	.253**	.512**	1	
3 공격성	.450**	.483**	.275**	.417**	.471**	.401**	.380**	.230**	.285**	.401**	.361**	.260**	.159**	.362**	.254**	.411**	.392**	1

또한 반사회성과 초기 부적응 도식, 공격성의 하위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두 변인 모두 공격성의 하위 변인 중에서 적대감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반사회성  $r=.449$ ,  $p<.01$ , 초기 부적응 도식  $r=.613$ ,  $p<.01$ ) 언어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반사회성  $r=.209$ ,  $p<.01$ , 초기 부적응 도식  $r=.140$ ,  $p<.01$ ).

즉 가정에서 불편감을 겪거나 사회적으로도 비순응적이고 사회적 규범 혹은 권위적 대상에 대한 거부적인 감정이 많을수록 분노감 그리고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적대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이에 비해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은 다소 적다는 것이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 있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생애 초기에 유해한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도식이 많을수록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수록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적대감으로 많이 표출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서 가설 2-1과 2-2가 지지되었음이 밝혀졌다. 반사회성과 초기 부적응 도식, 공격성 하위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반사회성, 초기 부적응 도식, 공격성의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

	반사회성	도식	공격성
반사회성			
도식	.444**		
공격성	.450**	.483**	
신체공격성	.321**	.261**	
언어공격성	.209**	.140**	
분노감	.311**	.361**	
적대감	.449**	.613**	

\*\* $p<.01$

## 2. 반사회적 성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매개 효과 검증은 전체 집단(n=609), 남성 집단(n=309), 여성 집단(n=300)을 대상으로 반사회성이 공격성 또는 그 하위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 매개 효과가 입증되려면 첫째,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매개 변인은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종속 변인의 분산을 설명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매개 변인 투입 후의 독립 변인의 설명량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1) 전체 집단

####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공격성에 대한 매개 효과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회귀방정식의 경우 독립변인으로 반사회성을, 종속변인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을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반사회성을 독립변인으로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회귀방정식에서 반사회성과 초기 부적응 도식을 모두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최종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 투입 후의 독립 변인의 설명량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초기 부적응 도식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부

분 매개하였는데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반사회성은 초기 부적응 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고( $\beta=.444, p<.001$ ),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도 반사회성은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beta=.450, p<.001$ ).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초기 부적응 도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 $\beta=.450, p<.001$ )이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 $\beta=.294, p<.001$ ). 추가적으로 매개 변인에 의한 간접적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Z값( $Z=7.42, p<.001$ )을 보였다. 그러므로 초기 부적응 도식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반사회성 자체가 공격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초기 부적응 도식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또한 있다는 것을 말한다.

<표 3>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전체 집단)

단계	변인	$\beta$	$\Delta R^2$	$\Delta F$	Sobel Test
1 독립->매개	반사회성->초기 부적응 도식	.444***	.195	148.626***	
2 독립->종속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7.42***
3 독립->종속	반사회성->공격성	.294***	.301	131.605***	
매개->종속	초기 부적응 도식->공격성	.353***			

\*\*\* $p<.001$

## (2)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변인의 공격성에 대한 매개 효과

전체 집단의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도식에 따른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매개 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고 Sobel Test를 통하여 설명량 감소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15개의 하위 도식 중 자기희생을 제외한 14개의 하위 도식 영역에서 매개 효과를 보였고 모두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각 하위 도식에서 매개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3단계에서의  $\Delta R^2$ 을 확인하였고  $\Delta R^2$ 의 값이 클수록 매개의 설명력이 커지는 것이다. 하위 도식 영역에서의 매개 설명력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불신(30.3%), 특권의식(29.6%), 유기(27.2%), 위협(26.9%), 고립(26.2%), 부족한 자기 통제(26.0%), 정서적 억제(25.3%), 결함(25.1%), 융합(24.9%), 엄격한 기준(24.1%), 의존(22.5%), 정서적 결핍(21.8%), 복종(21.7%), 실패(21.4%)이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하위 도식의 매개 효과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하위 도식의 매개 효과(전체 집단)

하위 도식	단계	변인	$\beta$	$\Delta R^2$	$\Delta F$	Sobel Test
정서적 결핍	1	반사회성->정서적 결핍	.330***	.107	74.029***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3.42***
	3	반사회성->공격성 정서적 결핍->공격성	.403*** .142***	.218	85.789***	
유기	1	반사회성->유기	.377***	.141	100.652***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6.12***
	3	반사회성->공격성 유기->공격성	.342*** .288***	.272	114.348***	
불신	1	반사회성->불신	.392***	.152	110.097***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6.93***
	3	반사회성->공격성 불신->공격성	.314*** .348***	.303	133.056***	
고립	1	반사회성->고립	.382***	.144	103.445***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5.88***
	3	반사회성->공격성 고립->공격성	.348*** .268***	.262	108.752***	
결함	1	반사회성->결함	.380***	.143	102.185***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5.46***
	3	반사회성->공격성 결함->공격성	.357*** .244***	.251	103.089***	
실패	1	반사회성->실패	.260***	.066	44.156***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2.92**
	3	반사회성->공격성 실패->공격성	.419*** .121**	.214	83.606**	

의존	1	반사회성->의존	.298***	.087	59.301***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3.79***
	3	반사회성->공격성	.401***	.225	89.257***	
		의존->공격성	.165***			
위험	1	반사회성->위험	.347***	.119	82.895***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5.87***
	3	반사회성->공격성	.354***	.269	112.666***	
		위험->공격성	.279***			
융합	1	반사회성->융합	.341***	.114	79.612***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5.19***
	3	반사회성->공격성	.370***	.249	101.703***	
		융합->공격성	.234***			
복중	1	반사회성->복중	.300***	.089	60.167***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3.34***
	3	반사회성->공격성	.409***	.217	85.359***	
		복중->공격성	.137***			
정서적 억제	1	반사회성->정서적 억제	.321***	.102	69.953***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5.10***
	3	반사회성->공격성	.372***	.253	103.997***	
		정서적 억제->공격성	.243***			
엄격한 기준	1	반사회성->엄격한 기준	.120***	.013	8.842***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2.62**
	3	반사회성->공격성	.426***	.241	97.493***	
		엄격한 기준->공격성	.203***			

특권의식	1	반사회성->특권의식	.247***	.059	39.301***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5.12***
	3	반사회성->공격성	.371***	.296	129.088***	
		특권의식->공격성	.320***			
부족한 자기통제	1	반사회성->부족한 자기통제	.362***	.130	91.639***	
	2	반사회성->공격성	.450***	.201	154.337***	5.62***
	3	반사회성->공격성	.355***	.260	108.073***	
		부족한 자기통제->공격성	.263***			

\*\*p<.01 \*\*\*p<.001

## 2) 남성 집단

###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공격성에 대한 매개 효과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회귀방정식의 경우 독립변인으로 반사회성을, 종속변인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을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반사회성을 독립변인으로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회귀방정식에서 반사회성과 초기 부적응 도식을 모두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최종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 투입 후의 독립 변인의 설명량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초기 부적응 도식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는데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반사회성은 초기 부적응 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고( $\beta=.434, p<.001$ ),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도 반사회성은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beta=.429, p<.001$ ).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초기 부적응 도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 $\beta=.429, p<.001$ )이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 $\beta=.254, p<.001$ ). 또한 매개 변인에 의한 간접적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 결과, 유의한 Z값( $Z=5.72, p<.001$ )을 보였다. 그러므로 초기 부적응 도식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남성 집단에서도 반사회성 자체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하나 초기 부적응 도식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 또한 있다는 것을 말한다.

<표 5>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남성 집단)

단계	변인	$\beta$	$\Delta R^2$	$\Delta F$	Sobel Test
1 독립->매개	반사회성->초기 부적응 도식	.434***	.186	71.340***	
2 독립->종속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5.72***
3 독립->종속	반사회성->공격성	.254***	.313	71.119***	
매개->종속	초기 부적응 도식->공격성	.405***			

\*\*\*p<.001

(2)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변인의 공격성에 대한 매개 효과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도식에 따른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매개 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고 Sobel Test를 통하여 설명량 감소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15개의 하위 도식 중 자기 희생, 엄격한 기준을 제외한 13개의 하위 도식 영역에서 매개 효과를 보였고 모두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각 하위 도식에서 매개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3단계에서의  $\Delta R^2$ 을 확인하였고  $\Delta R^2$ 의 값이 클수록 매개의 설명력이 커지는 것이다. 하위 도식 영역에서의 매개 설명력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불신(32.6%), 특권의식(30.5%), 고립(28.8%), 유기(26.8%), 정서적 억제(26.7%), 부족한 자기 통제(26.6%), 위협(25.3%), 결함(23.9%), 복종(22.0%), 융합(21.9%), 정서적 결핍(20.7%), 의존(20.3%), 실패(20.1%)이다.<표 6>

<표 6>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하위 도식의 매개 효과(남성 집단)

하위 도식	단계	변인	$\beta$	$\Delta R^2$	$\Delta F$	Sobel Test
정서적 결핍	1	반사회성->정서적 결핍	.352***	.121	43.441***	2.92***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3	반사회성->공격성	.367***	.207	41.209**	
		정서적 결핍->공격성	.178**			
유기	1	반사회성->유기	.391***	.150	55.346***	4.68***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3	반사회성->공격성	.303***	.268	57.312***	
		유기->공격성	.323***			
불신	1	반사회성->불신	.402***	.159	59.234***	5.61***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3	반사회성->공격성	.262***	.326	75.404***	
		불신->공격성	.417***			
고립	1	반사회성->고립	.362***	.129	46.415***	4.79***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3	반사회성->공격성	.301***	.282	63.244***	
		고립->공격성	.353***			
결함	1	반사회성->결함	.341***	.114	40.472***	3.85***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3	반사회성->공격성	.341***	.239	49.397***	
		결함->공격성	.260***			

실패	1	반사회성->실패	.294***	.080	28.945***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2.57**
	3	반사회성->공격성	.384***	.201	39.833***	
		실패->공격성	.156**			
의존	1	반사회성->의존	.332***	.107	37.904***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2.72**
	3	반사회성->공격성	.375***	.203	40.304**	
		의존->공격성	.165**			
위협	1	반사회성->위협	.404***	.161	60.045***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4.46***
	3	반사회성->공격성	.310***	.253	53.123***	
		위협->공격성	.296***			
융합	1	반사회성->융합	.310***	.093	32.737***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3.39***
	3	반사회성->공격성	.364***	.219	44.177***	
		융합->공격성	.210***			
복종	1	반사회성->복종	.303***	.089	31.018***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3.23***
	3	반사회성->공격성	.365***	.220	44.553***	
		복종->공격성	.213***			
정서적 억제	1	반사회성->정서적 억제	.305***	.090	31.560***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4.09***
	3	반사회성->공격성	.335***	.267	57.056***	
		정서적 억제->공격성	.310***			

특권의식	1	반사회성->특권의식	.243***	.056	19.338***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3.78***
	3	반사회성->공격성	.340***	.305	68.727***	
		특권의식->공격성	.365***			
부족한 자기통제	1	반사회성->부족한 자기통제	.325***	.103	36.216***	
	2	반사회성->공격성	.429***	.182	69.373***	4.25***
	3	반사회성->공격성	.328***	.266	56.890***	
		부족한 자기통제->공격성	.311***			

\*\*p<.01 \*\*\*p<.001

### 3) 여성 집단

####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공격성에 대한 매개 효과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반사회성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첫 번째 회귀방정식의 경우 독립변인으로 반사회성을, 종속변인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을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반사회성을 독립변인으로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마지막 회귀방정식에서 반사회성과 초기 부적응 도식을 모두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고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최종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 투입 후의 독립 변인의 설명량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초기 부적응 도식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였는데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반사회성은 초기 부적응 도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고( $\beta=.453, p<.001$ ),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도 반사회성은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beta=.482, p<.001$ ).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초기 부적응 도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 $\beta=.482, p<.001$ )이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 $\beta=.332, p<.001$ ). 추가적으로 매개 변인에 의한 간접적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Z값(5.05,  $p<.001$ )을 보였다. 그러므로 초기 부적응 도식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 집단에서도 전체집단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성적 성향 자체가 공격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초기 부적응 도식을 통한 간접

적인 영향 또한 있다는 것을 말한다.

<표 7>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여성 집단)

단계	변인	$\beta$	$\Delta R^2$	$\Delta F$	Sobel Test
1 독립->매개	반사회성->초기 부적응 도식	.453***	.203	77.128***	
2 독립->종속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5.05***
3 독립->종속	반사회성->공격성	.332***	.314	69.421***	
매개->종속	초기 부적응 도식->공격성	.330***			

\*\*p<.01 \*\*\*p<.001

(2)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변인의 공격성에 대한 매개 효과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도식에 따른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고 Sobel Test를 통하여 설명량 감소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15개의 하위 도식 중 정서적 결핍, 실패, 복종, 자기희생을 제외한 11개의 하위 도식 영역에서 매개 효과를 보였고 모두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각 하위 도식에서 매개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3단계에서의  $\Delta R^2$ 을 확인하였고  $\Delta R^2$ 의 값이 클수록 매개의 설명력이 커지는 것이다. 하위 도식 영역에서의 매개 설명력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위험(31.2%), 불신(30.3%), 특권의식(30.1%), 유기(30.0%), 융합(29.9%), 부족한 자기 통제(28.3%), 의존(27.4%), 결함(27.2%), 고립(25.6%), 정서적 억제(25.5%), 엄격한 기준(25.3%)이다. <표 8>

<표 8>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하위 도식의 매개 효과(여성 집단)

하위 도식	단계	변인	$\beta$	$\Delta R^2$	$\Delta F$	Sobel Test
유기	1	반사회성->유기	.366***	.131	43.752***	4.27***
	2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3	반사회성->공격성	.376***	.300	65.042***	
		유기->공격성	.289***			
불신	1	반사회성->불신	.382***	.143	50.911***	4.50***
	2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3	반사회성->공격성	.368***	.303	66.063***	
		불신->공격성	.298***			
고립	1	반사회성->고립	.400***	.157	56.892***	3.10***
	2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3	반사회성->공격성	.408***	.256	52.320**	
		고립->공격성	.184**			
결함	1	반사회성->결함	.416***	.170	62.434***	3.70***
	2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3	반사회성->공격성	.386***	.272	56.728***	
		결함->공격성	.231***			
의존	1	반사회성->의존	.274***	.072	24.165***	3.30***
	2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3	반사회성->공격성	.420***	.274	57.443***	
		의존->공격성	.225***			

위협	1	반사회성->위협	.296***	.085	28.614***	
	2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3.99***
	3	반사회성->공격성	.392***	.312	68.700***	
		위협->공격성	.304***			
융합	1	반사회성->융합	.368***	.133	46.705***	
	2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4.32***
	3	반사회성->공격성	.376***	.299	64.912***	
		융합->공격성	.289***			
정서적 억제	1	반사회성->정서적 억제	.337***	.111	38.172***	
	2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2.98***
	3	반사회성->공격성	.422***	.255	52.267**	
		정서적 억제->공격성	.178**			
엄격한 기준	1	반사회성->엄격한 기준	.155***	.021	7.377***	
	2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2.07*
	3	반사회성->공격성	.456***	.253	51.718***	
		엄격한 기준->공격성	.164**			
특권 의식	1	반사회성->특권 의식	.250***	.059	19.801***	
	2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3.49***
	3	반사회성->공격성	.412***	.301	65.227***	
		특권 의식->공격성	.279***			
부족한 자기통제	1	반사회성->부족한 자기통제	.399***	.157	56.592***	
	2	반사회성->공격성	.482***	.230	90.113***	4.02***
	3	반사회성->공격성	.379***	.283	59.931***	
		부족한 자기통제->공격성	.257***			

\*\*p<.01 \*\*\*p<.001

## VI. 논의

### 1. 결과 논의

본 연구는 전체 609명의 설문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반사회적 성향(이하 반사회성이라 칭함)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갖는 매개 효과를 알아보았고 공격성에 있어서 남녀 성차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매개 검증을 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사회성, 초기 부적응 도식, 공격성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반사회성과 초기 부적응 도식 모두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여 가설 2-1과 2-2는 지지되었다고 밝힐 수 있다. 즉 반사회성이 높을수록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보복하려는 생리적 각성 상태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폭력이나 말싸움 혹은 분노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상관이 높다는 결과는 반사회성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나타낸 김현수, 김현실(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반사회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하위 변인은 적대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사회성과 신체공격성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양기숙(2007)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양기숙(2007)의 연구에서는 살인범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포함한 전체 집단이므로 성별에 대한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과 공격성 간의 상관 분석 결과 역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하위 변인은 적대감으로 나타났다. 즉

생애 초기에 유해한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초기 부적응 도식은 타인에 대한 인지적 경계심과 불편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과국, 충동/분노, 배려/회생 도식이 적대감을 설명한다는 조성호(2002)의 연구와도 일부 일치하며 유기, 고립, 실패, 의존, 위협에 대한 취약성 도식이 '적대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이지영, 손정락(2007)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도식과 공격성간의 상관관계 결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15개의 하위 도식 모두가 공격성과 상관성이 있었고 그 중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도식이 불신, 가장 상관성이 낮게 나타난 도식이 자기희생이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나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말 것이라는 불신 도식은 다른 어떤 도식들보다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Young이 불신 도식에 대해 설명한 것-불신 도식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먼저 공격을 하느냐 후에 복수를 하느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과 관련이 있다. 또한 자기희생의 경우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과도하게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공격성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의미를 얻고 자존감향상을 느낀다고 Young은 설명하고 있다.

둘째,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여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이는 반사회성이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초기 부적응 도식을 불러 일으켜 이것이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부적응 도식이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역기능적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며 아동기 시절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조성호 2002)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불화와 권위불화 그리고 지나친 사회적 침착성과 사회적, 내적 소외에 대한 경험은 부적응적인 행동을 유지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신념 즉 도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부분 매개

를 보인 도식은 불신(30.3%), 특권의식(29.6%), 유기(27.2%), 위협(26.9%), 고립(26.2%), 부족한 자기 통제(26.0%), 정서적 억제(25.3%), 결함(25.1%), 융합(24.9%), 엄격한 기준(24.1%), 의존(22.5%), 정서적 결핍(21.8%), 복종(21.7%), 실패(21.4%) 이다. 이 14개의 도식 중 가장 설명량이 큰 불신, 특권의식, 유기 도식은 임상 및 상담 장면 등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유의미하게 적용 가능한 중요한 도식이라 할 수 있는 바 이 세 도식에 대해 선택적으로 논하도록 한다.

먼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불신 도식과 관련하여 반사회성이 불신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하용수(2008)의 연구가 있다. 즉 가정 불화와 권위 불화를 경험하고 사회적, 내적으로 소외감을 느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상처를 주며 속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며 이것은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격성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Young은 아동기에 부모나 형제, 또래들에 의해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불신 도식이 많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학대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종할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이에 대한 불안이 공격적인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유정(2005)의 연구, 학대 경험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는 신혜영(2003)의 연구 외 많은 연구에서 학대 경험이 공격성과 유의미하다는 결과는 불신 도식을 통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학대하는 부모들 대부분이 그들 자신이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Justice & Duncan, 1976) 아동기 폭력 경험이 많은 남편일수록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예정, 2001) 이러한 경우 역시 가정 불화와 권위 불화를 경험하면서 타인이 나를 모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마저 적용됨으로서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공격성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신 도식을 지닌 내담자의

경우 신뢰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신뢰할만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고 어릴 적 학대 경험이 있다면 학대자에 대해 해명하거나 핑계를 대주는 것을 그만하고 학대한 것에 대해 비난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면서 분노감을 포함한 공격성은 차츰 줄어들 것이다.

다음으로 매개 효과가 큰 것이 특권의식으로 밝혀졌는데 특권의식은 자신에게 특별한 권리나 각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즉 가정 불화, 권위 불화 및 소외를 많이 느낄수록 자신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남을 지배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 Young에 의하면 특권의식 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상호성의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며 남에게 폐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즉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역으로 자기애는 높아지는 것인데 이는 반사회성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인 공감능력 부족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Morf와 Rhodewalt(2001)은 자기애적 인식이 뚜렷하게 증가하면 자기(self)가 크게 취약해진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높은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다양한 개인 내외적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의 팽창된 자아 존중감을 보존하기 위해 외부의 단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자극을 받는다. 자기 위협의 상황에 직면하면 높은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자아존중감을 재확립하고 위협을 가하는 특정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기제로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가설이다. 즉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기분, 동기,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적응적 기제로 공격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은 공격성이 높다는 이세연(2008)의 연구, 자기애가 높은 청소년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또래들 사이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주목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해석을 한 윤현혜(2009)의 연구가 있다. 그러므로 반사회성은 공감능력의 부족과 자신이 타인보다 우세한 사

람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여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특권의식을 지닌 내담자의 경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상호성의 원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과 타인을 판단할 때 지나치게 신분이나 표면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버리도록 돕고 분노 조절과 주장훈련과 같이 무엇을 요구할 때 타인에 대한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다 자기주장적인 태도로 대체하는 법을 알려줌으로서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은 유기 도식이다. 유기는 감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을 잃게 될지 모른다고 미리 염려하는 생각을 말하며 버림받았거나 곁에 있다 없다 했던 부모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 지니게 된다. 이렇게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 등의 부정적 감정이 쌓여 여성을 상대로 복수, 체벌하는 방식의 성폭력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공격성을 설명한 연구가 있다(William. H. Master, 2008). 이러한 유기 도식을 지닌 내담자에게는 버림받았거나 불안정했던 아동기 경험을 재경험하게 하여 버림받은 아이를 위로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떠나거나 죽거나 할 것이라는 과장된 관점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내담자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매달리고 통제하는 행동으로 상대를 밀쳐내는 것을 그만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반사회성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를 성별로 검증해 본 결과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연구 결과 남녀 집단 간 중복이 되는 도식도 있었고 집단 고유만의 도식도 있었다. 중복이 되는 도식으로는 불신, 특권의식, 고립, 유기, 정서적 억제, 부족한 자기 통제, 위협, 결함, 융합, 의존이었고 남성 집단에서는 불신이, 여성 집단에서는 위협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남성에게만 매개 효과를 보인 도식은 복종, 정서적 결핍, 실패였고 여성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었다.

우선, 남성 집단에서는 불신(32.6%), 특권의식(30.5%), 고립(28.8%), 유기(26.8%), 정서적 억제(26.7%), 부족한 자기 통제(26.6%), 위협(25.3%), 결함(23.9%), 복종(22.0%), 융합(21.9%), 정서적 결핍(20.7%), 의존(20.3%), 실패(20.1%)도식이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전체집단과 비교하여 불신과 특권의식은 같은 순위였으나 세 번째로 설명력이 큰 도식은 고립으로 나타났다. Young에 의하면 이 도식은 아동이 자신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초기 경험에서 유발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질감을 느끼면서 가정불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도식을 일으켜 타인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더불어 현대 남성들은 자신이 가정을 돌보아야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성취를 위하여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하며 지나치게 경쟁하고 자신이 가정에서 특별한 존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느낌을 갖기 쉽다. 이같은 감정은 반사회성과 함께 자신이 그 어떤 공동체에도 속해있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어 공격적인 행동 표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알콜 중독자의 경우 반사회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는데(조성남,이대희, 1987) 이러한 반사회성을 보이는 알콜 중독자 대부분이 직장생활과 현실적응에 문제가 많고 자녀의 인격발달에도 영향을 주므로 부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과 지인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질책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여기에서 알콜 중독자들은 자신이 어느 집단이나 조직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이러한 심적 불안을 공격성으로 대치하게 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고립 도식을 지닌 내담자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질감을 줄이도록 돕고 삶의 중요한 부분을 변화시켜 광범위하게 회피해오던 것을 극복하도록 한다. 최근에 소외되었다고 느낀 집단 상황에 대해 탐색하고 집단 속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적 기술 훈련 등을 통해 공격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집단과 달리 남성 집단에게만 정서적 결핍, 복종, 실패 도식이 나타난 것은 우

리나라 남성들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성격의 하나로 가부장제를 통해 형성되어져 온 권위주의 성격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계승되어져 왔다. 이에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남아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황연정, 2000)와 마찬가지로 애정과 공감, 보호가 결핍된 권위적 양육방식에서 성장해온 남성들은 정서적 지지는 받지 못할 것이며 타인에게 자신의 통제권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도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계급과 명령을 따르는 기계적인 상황에서 도식들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렇듯 정서적 지지나 충족보다는 상하관계를 경험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싶은 소망이 충족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정서적 결핍)과 처벌당하는 것이 두려워 타인에게 통제권을 내어주고 지나치게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복종)을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부적응적인 행동방식 즉 분노감을 쌓아두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공격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실패 도식은 자신이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뜻하는데 우리 나라 대부분 남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남성 또는 다른 가정의 가장과 비교하며 사회에서 성공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며 생활한다. 그래서 동연령에 비해 성취의 영역에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낮고 덜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권위불화를 경험하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직장 남성들이 자신의 성취 면에서의 부족함을 늘 생각하기때문에 과민해지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공격성이 더욱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사회성이 높은 남성의 경우, 정서적 결핍 도식이 있다면 치료 장면에서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증거들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본인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정서적 지지를 대인관계에서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복종 도식이 있다면 복종을 하고 난 후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대응인지 탐색하게

하고, 실패 도식이 있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성공에 대해 지지하고 인정하며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성공에 대한 기대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면 내담자의 공격성을 줄이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여성 집단에서는 위험(31.2%), 불신(30.3%), 특권의식(30.1%), 유기(30.0%), 융합(29.9%), 부족한 자기 통제(28.3%), 의존(27.4%), 결함(27.2%), 고립(25.6%), 정서적 억제(25.5%), 엄격한 기준(25.3%) 도식이 반사회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내었고 가장 설명력이 높은 도식은 위험으로 나타났다. 위험 도식은 끔찍한 재난이 언제라도 일어날 것이며 자신은 그 재난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과장된 공포를 뜻한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자보다 불안이 높은 것으로 설명가능하며 불안장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많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과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외상적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외상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남성보다 PTSD가 나타나기 쉽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122명의 남성과 여성이 참여한 연구에서 남성의 4.7배에 해당하는 여성이 회피와 감정둔화를 경험하였고 3.8배의 여성이 예민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해 Fodor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신감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가설은 광장 공포증이 심한 여성이 전형적인 '남성적' 특질을 측정하는 점수가 낮게 나온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이 덜 독립적으로 교육받음으로서 나에게 일어나는 재앙은 내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며 이러한 불안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공격적인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위험 도식을 지닌 내담자에게는 재난적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의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자신의 두려움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며 비록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불안에서 오는 공격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남성 집단에서 매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엄격한 기준이 여성 집단에 나타난 것은 현대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 엄격한 기준은 행동과 수행에 대해 매우 높은 내재화된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기저 신념으로 어린 시절 높은 기준을 지닌 부모의 내재화로서 완벽주의로도 설명가능하다.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성향이 높을수록 여아의 경우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이재연, 2004) 여대생의 경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특질 분노와 분노 경험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다(박성실, 2003). makiko kosama, akiko sugimoto, fumiko matsuda(2002) 에 의하면 현대 여성은 자신이 안고 있는 성역할과 사회 일반기대와 큰 차이를 인지하고, 강한 갈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아이를 낳아 양육해야 하는 기존의 성역할과 능력있는 여성이라면 사회에서도 그 능력을 펼치기를 기대하는 새로운 성역할의 요구로 알파걸, 수퍼맘이 되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행동과 수행에 대한 매우 높은 내재화된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는 도식은 계속 반복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발생하게 하여 공격적인 태도가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반사회성은 현대 여성에게 있어 시간과 효율성에 대해 몰두하고 경직된 기준으로 지나친 비판을 반복하는 생각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엄격한 기준 도식을 지닌 내담자에게는 높은 기준을 낮추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들, 완벽한 기준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것들, 삶의 즐거움과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손상시켰던 장면들을 탐색하게 한다. 그리고 불완전함은 죄가 아니며 극심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타인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줄이도록 도와 공격성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많은 하위도식들이 반사회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성별로 특정 하위 도식이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남성,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유형과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도식에 따른 치료를 통하여 그들의 공격성을 낮추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파악하여 개인 심리 치료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공격성조절프로그램, 비행예방프로그램, 재소자 재범방지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에 대한 것이다. 대상자 609명 중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지방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라도, 경상도, 제주 지방에서는 70여명 추출된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상자 609명 중 400여명이 2, 30대 성인들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연령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반복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으로 되어 있다. 자기보고식 측정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오류가능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뢰도나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들이나 피험자들의 반응태도나 환경에 의해 왜곡되어 주관적 편향의 소지가 있다. 특히 초기 부적응 도식과 같이 추상적이고 쉽게 의식하기 힘든 인지를 자기 보고 식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셋째, 참고한 선행 연구의 경우 본 연구와 다른 척도를 사용한 것이 많다. 도식의 경우에도 조성호(2001)가 개발한 173문항의 16개 요인이 있는 도식, 하준명(2006)이 변안한 90문항의 6점 척도 도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성과 공격성간의 매개변인으로 초기 부적응 도식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초기 부적응 도식 외에도 많은 변인들이 반사회성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변인들을 검증하여 공격성 감소에 대해 보다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강현숙 (2008). **잠재 비행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의 양육행동, 친구관계, 사회적 지지,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공정식 (2006). **살인범들에 대한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 살인범들의 정신병질과 기질불안에 따른 범행특성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선영 (2005). **비행 청소년의 재범위험성차이에 관한 연구: 비행 촉발 요인 조사와 PAI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석, 서경현 (2003). **폭력범죄자의 반사회성과 문제음주 및 음주동기와 의 관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4(1), 53-59.
- 김미경 (2002).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격성, 충동성, 대인불안과 컴퓨터 게임 중독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애 (2008).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 시설유아와 일반 유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연 (2008). **미술 매체를 이용한 집단 상담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선 (2000).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환, 박은영, 오상우, 홍상환 (2002). **PAI의 임상적 해석.** 서울: 학지사

- 김예정 (2001). **남편의 성장기 폭력 경험,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윤숙 (2005).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 초기 부모 애착과 경계선 성격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주 (2005). **연쇄살인범의 범죄 심리에 관한 연구: 유영철 사건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미 (2003). **청소년의 애착 유형과 비합리적 신념 및 공격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주희 (2007).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현실요법과 인지행동수정의 효과 비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 (2007). **초기부적응도식, 외로움, 우울 증상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희 (2006). **분노조절 집단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분노와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지원형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수, 김현실 (2004). **한국 청소년의 공격성 관련변인 및 표출 경로.** *Korean Neuropsychiatry Assoc*, 43(1), 75-85.
- 김현지 (1998).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 및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연 (2006). **심리도식,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수 (2003). **강박성 성격장애 성향과 역기능적 신념, 자기 및 타인 표상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성길 (2003).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박덕규 (1986).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공격성.** 서울: 배영사.

- 박성실 (2003).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분노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소은 (2009). **비행청소년의 정신장애 성향과 폭력 범죄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된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윤선 (2008). **다이어트 경험, 심리도식 및 섭식귀인양식이 섭식문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민 (1997). **비행 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은 (2002).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및 또래동조성과 집단 따돌림 가해경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지현 (2005). **남자 비행 청소년들의 부모 애착과 반사회성 및 공감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석지은 (2008). **애착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심리도식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혜숙 (2000). 복합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성과 반사회성. **한국유아교육학회**, 20(3), 85-97.
- 송현저 (1994). **시험부정행위와 性, 내외적 성공기대, 반사회성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중순 (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지원 (1997).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공격성향 및 도덕적 판단능력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희천, 신은향(2000). **반사회성 성격장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들**. 서울: 학지사.

- 신혜영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기숙 (2007).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살인범 집단의 공격성과 충동성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종국, 김충기 (2002). 비행 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101-121.
- 유진영 (1995). 직장 남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회**, 14, 23-40.
- 윤현해 (2009). **청소년의 지명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규미 (1998).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 과정에서의 공격 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규휘 (2009). **우울-반사회적 성향 재소자의 기질 및 정서특성과 자살생각**.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봉남 (2009).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서 중심 치료 프로그램 개발: Young의 심리도식치료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한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세연 (2008).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진 (2008). **결손 가정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연 (2004).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분노표현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영 손정락(2007). 도식과 정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6-277.
- 이진 (1997). **소녀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수원보호관찰소 비행소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지영 (2008). **경계선 성격특질과 반사회성 성격특질의 비교: 충동성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미란 (2007). **해결중심상담을 기반으로 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은청 (2008). **만화기법을 이용한 집단 미술 치료가 정서 장애 아동의 대인 관계 향상과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서보완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현 (2008). **부적응 도식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선주, 서동혁 (2002). 구속된 비행청소년들의 기질 및 성격차원, 가정환경요인과 반사회적 인격특성간의 관계. **한국정신의학**, 41(4), 670-679.
- 정안숙 (2003). **가족 및 또래 관계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우울 및 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왕용 (1994). **알콜중독자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요인**.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자 (1996). **현실 요법 상담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유정 석주영 박인전 (2005).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원**, 16, 133-163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77-192
- 조성호 (200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14(4), 775-788.
- 조현춘 (199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명희 (2007). 분노의 심리적 과정과 치료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용수 (2008). 대학생 표본에서 초기 부적응 심리도식과 성격장애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준명 (2006). 알코올 의존 환자의 인지 도식.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혜신 (2007). 남녀 청소년에 따른 부적응도식,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과 우울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일지 (2004). 부적응 도식, 스트레스, 자동적 사고와 편집성향 및 우울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정주 (1998). 아동의 감정이입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연정 (2000). 아버지의 권위주의 성향과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drea&Ernest&Barratt. (2004). Predicting boderline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subjects using measures of impulsivity and aggressiveness. *psychiatry research* 149, 157-167
- Bandura. A. (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is. N. J. : Perntice-Hall.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2-459.
- Crick, N. R.(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a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Dodge, K. A., & Coie, J. (1987). Social informa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Eron, L. D. (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 435-442.
- Forgus,R. & Shulman, B. (1979). Personality : A cognitive view. *New Jersey : Prentice Hall*.
- Freeman. N.(1999). Constuctive Thinking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as predictor of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Dissertations Abstracts International*. 59, 9B.
- Justice, B & Duncan, D.F. (1975). Life Crisis as a Precursor to Child Abuse. *Public Health Reports*, 91/2.
- Kauffman, J. M. (1981). Characteristic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 *Columbus; A Bell & Howell Company*.
- Kostelnik, M. J., Soderman, A. K., L. C., & Gregory, K. (2002).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4th ed.)*. Delmar/Tomson Learning.
- Kubo Motoyoshi & Yoshida Saori (2007). *Relationships between Aggression and Area-Specific Self-Esteem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 Maccoby EE & Jacklin CN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 reprise. *Child Dec.*
- Makiko Kosama & Akiko sugimoto & Fumiko Matsuda (2002). *A Relationship between the SCT-B Response Patterns and YG Test : On the View of Sex Difference.*
- Nagafusa Noriuki & Matsumoto Tsuneyuki (2003). 恥意識と攻撃性 - 個人, 社會志向性と文化的自己 からの検討. *東洋大學社會學研究科博士課程.*
- Nodahl, H. M., Holthe, H., & Haugum, J, A. (2005).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patients with or without personality disorder: Does schema modificarion predict symptomatic relieve.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 142-149.*
- Petrocelli, J. V., Glaser, B. A., Calhoun, G. B., & Campbell, L. F. (2001). Early Maladaptive schemas of personality disorder subtyp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 546-559.*
- Reeves, M., & Taylor, J. (2007). Specific relationships between core beliefs and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in a non-clinical sample. *Clinical Psycohlogy and Psychotherapy, 14, 96-104.*
- Rule, B. G., & Nesdale, A. R. (1976). Emotional arousal and aggressiv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83, 851-863.*
- Seidman, E., Chiesir-Teran, D., Fiedman, J. L., Yochikawa, H., Allen, L., Robertsm A., & Aber, J. L. (1999). The Risk and Protective Functions of Perceived Family and Peer Microsystems Among Urban Adolescents i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2), 211-233.

- Willam. H. Master. (2008). *Human Sexuality* (김세철, 김원희, 윤가현, 채규만, 역). 서울: 군자출판사.
- Young, J. E. (1991). *Early maladaptive schemas*. Unpublished manuscript.
- Young, J. E. (1999).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 A schema-focused approach*(Third Edition). Professional Resource Press, Sarasota, Florida.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rev. ed). New York: Guilford Press.

# ABSTRACT

## **A Study on the Antisocial personality and Aggression - 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 -**

Park Seo-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 between antisocial personality and Aggression.

Three hundred nine male and three hundred female were recruited and asked to fill out MMPI-2 Psychopathic Deviate scale(exclusion about antisocial behavior), Aggression Question-Korea version and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Cronbach's Alpha, correlation, Sobel 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ia SPSS 16.0 for Window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al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antisocial personality,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aggression. Second,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whole group showed the mediating effects of mistrust/abuse, entitlement,

abandonment, vulnerability to harm, social isolation, insufficient self-control, emotional inhibition, shame, enmeshment, unrelenting standards, dependence/incompetence, emotional deprivation, subjugation, failure to achieve. Third,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male group showed the mediating effects for the mistrust/abuse, entitlement, social isolation, abandonment, emotional inhibition, insufficient self-control, vulnerability to harm, shame, subjugation, enmeshment, emotional deprivation, dependence/incompetence, failure to achie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social personality and Aggression. In case of female group, the results showed the mediating effects of vulnerability to harm, mistrust/abuse, entitlement, abandonment, enmeshment, insufficient self-control, dependence/incompetence, shame, social isolation, emotional inhibition, unrelenting standards.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ntisocial personality, aggression, early maladaptive schema

## 부 록

1. 반사회적 성향 측정도구
2. 공격성 측정도구
3. 초기 부적응 도식 측정도구

<부록 1>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에 느끼시는 대로 V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그렇다	아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1	2
2.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	1	2
3. 확실히 내 팔자는 사납다.	1	2
4. 나는 성생활이 아주 만족스럽다.	1	2
5. 때때로 집을 몹시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1	2
6.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1	2
7. 때로는 욕을 퍼붓고 싶을 때가 있다.	1	2
8.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1	2
9.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1	2
10.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훨씬 더 성공했을 것이다.	1	2
11. 성적인 행동 때문에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다.	1	2
12. 어려서 한 때 줌도독질을 한 적이 있다.	1	2
13. 우리 가족들은 내가 택한 직업(택하려는 직업)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14. 언제나 참말만을 하지는 않는다.	1	2
15. 신문 사설을 매일 꼬박꼬박 읽지는 않는다.	1	2
16.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했다.	1	2
17. 나도 남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1	2

18. 가끔 화를 낸다.	1	2
19. 나는 언쟁을 하면 쉽게 지고 만다.	1	2
20. 요즈음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희망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1	2
21.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때가 가끔 있다.	1	2
22. 놀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다.	1	2
23.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1	2
24. 집안 사람들과 말다툼하는 일은 거의 없다.	1	2
25. 가장 힘든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1	2
26.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한다.	1	2
27. 실수나 나쁜 짓을 한 것 같이 스스로 느낄 때가 많다.	1	2
28. 나는 늘 즐겁다.	1	2
29.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1	2
30. 학교 다닐 때 말썽을 일으켜서 교무실에 불려간 적이 가끔 있다.	1	2
31. 집에서의 식사예절은 밖에서 남과 식사를 할 때만큼 좋지는 않다.	1	2
32. 내가 누구때문에 고생하는지 안다.	1	2
33. 때로 생각이 너무 빨리 떠올라서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1	2
34. 극장에 표를 안내고 들어가고 들키지만 앉는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다.	1	2
35. 우리 가정은 내가 아는 다른 가정처럼 즐겁게 지낸다.	1	2
36. 나는 대개 주위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1	2
37. 놀이(또는 게임)에서 지기보다는 이기고 싶다.	1	2

38. 체중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1	2
39. 유력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1	2
40.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1	2
41. 모임에서 장기자랑 순서가 돌아오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1	2
42.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었다.	1	2
43.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과는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1	2
44. 거지에게 돈 주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1	2
45.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	1	2
46. 수줍음을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1	2
47.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	1	2
48. 다른 가정에 비해 우리 가정은 사랑과 우애가 별로 없다.	1	2
49. 나의 부모는 내가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을 마땅치 않게 보는 때가 종종 있다.	1	2
50. 가끔 남의 흉을 본다.	1	2
51. 성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1	2
52. 나는 집안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행동한다.	1	2
53. 친척들은 거의 다 나와 마음이 잘 통한다.	1	2
54. 실연당한 적이 있다.	1	2
55. 내가 일하는 방식은 남에게 오해를 잘 받는다.	1	2

56. 나의 부모와 가족들은 필요 이상으로 나의 흠을 잡는다.	1	2
57. 때로 아무 이유없이 또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라도 굉장히 신나고 즐거울 때가 있다.	1	2
58. 가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	1	2
59.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알맞은 이야깃거리를 찾기가 어렵다.	1	2
60. 분명히 남들이 내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1	2
61. 이따금 지지분한 농담을 듣고 웃는다.	1	2
62. 친구들에 비하면 겁이 없는 편이다.	1	2
63. 재치있는 변호사의 변론으로 죄인이 석방될 때마다 법률에 대해 혐오를 느낀다.	1	2
64.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전혀 없다.	1	2
65. 별 이유없이 몹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다.	1	2

<부록 2> 다음 문항들은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에 느끼시는 대로 아래의 5점 척도에서 V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때로 나는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1	2	3	4	5
2. 누군가 화를 한껏 돋우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	1	2	3	4	5
3.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1	2	3	4	5
4.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 받고 싸우는 편이다.	1	2	3	4	5
5.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1	2	3	4	5
6. 나를 몰아세운 사람과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누군을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10.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잦다.	1	2	3	4	5
12.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그에 맞서 그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	1	2	3	4	5
13.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흔히 논쟁을 벌이게 된다.	1	2	3	4	5

14.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15. 나는 화가 빨리 치밀지만 또 빨리 풀어진다.	1	2	3	4	5
16. 일이 뜻대로 안됐을 때, 나는 화를 참기 어렵다.	1	2	3	4	5
17. 나는 때로 울분이 치밀어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 같다.	1	2	3	4	5
18.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	1	2	3	4	5
19. 나는 화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	2	3	4	5
20.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 있다.	1	2	3	4	5
21.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1	2	3	4	5
23. 나는 때로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한 적대감에 휩싸이곤 한다.	1	2	3	4	5
24. 나는 소위 “내 친구” 라는 자들이 나에게 대해 몰래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25.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 하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든다.	1	2	3	4	5
26.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7. 누가 내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 된다.	1	2	3	4	5

<부록 3> 다음은 사람들이 자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항의 내용이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에 따라 5점 척도에서 V표시하여 주십시오.

아주 일치하지 않는다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하지 않는다	약간 일치한다	웬만큼 일치한다	아주 일치한다
0	1	2	3	4	5

문 항	아주 일치 하지 않는다	대부 분 일치 하지 않는 다	약간 일치 하지 않는 다	약간 일치 한다	웬만 큼 일치 한다	아주 일치 한다
1. 나는 보살펴주거나 고민을 나누거나 내 말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없었다.	0	1	2	3	4	5
2.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0	1	2	3	4	5
3. 이제껏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0	1	2	3	4	5
4. 진정으로 내 말을 듣고 심정을 이해해주거나 또는 내 속마음이나 감정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늘 없었다.	0	1	2	3	4	5
5. 어찌해야 할 지 갈피를 못 잡을 때 내게 올바른 충고나 방향을 제시해 줄 만한 든든한 사람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	0	1	2	3	4	5
6. 가까운 사람들이 내 결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된다.	0	1	2	3	4	5
7. 내게는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잃게 될까봐 마음을 졸이게 된다.	0	1	2	3	4	5

8. 가까운 사람들이 내 결을 떠나가거나 나를 버릴 것 같은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0	1	2	3	4	5
9. 내가 관심을 쏟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져간다는 느낌이 들면 절망스럽다.	0	1	2	3	4	5
10. 때로는 사람들이 내 결을 떠날 것 같은 걱정을 떨치지 못해 아예 내가 그들을 멀리해 버리곤 한다.	0	1	2	3	4	5
11. 사람들이 날 이용할 거라고 느낀다.	0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계를 풀 수 없다고 느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해칠 것이다.	0	1	2	3	4	5
13.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 건 시간 문제다.	0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동기나 속셈에 대해 의심이 많은 편이다.	0	1	2	3	4	5
15. 나는 대개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찾는다.	0	1	2	3	4	5
16. 나는 어느 곳에서든 잘 어울리지 못한다.	0	1	2	3	4	5
17.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뭔가가 어긋나는 것 같다.	0	1	2	3	4	5
18.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고독한 사람이다.	0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0	1	2	3	4	5
20. 나는 무리에 끼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돈다는 느낌이 든다.	0	1	2	3	4	5
21. 내 결점을 알고 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다.	0	1	2	3	4	5

22.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다.	0	1	2	3	4	5
23. 나는 남들에게 사랑받거나 관심받거나 존중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0	1	2	3	4	5
24.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단 느낌이 든다.	0	1	2	3	4	5
25. 기본적인 결함 때문에 수용받기 힘든 마당에,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0	1	2	3	4	5
26. 일이나 성취 면에서 나는 남들에 비해 능력이 뒤쳐진다.	0	1	2	3	4	5
27. 성취 면에서 보자면 나는 무능하다.	0	1	2	3	4	5
28.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일과 성취영역에서 나보다 능력이 있다.	0	1	2	3	4	5
29. 일을 할 때 내가 발휘하는 재능은 남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0	1	2	3	4	5
30. 나는 남들에 비해 똑똑하지 못한 거 같다.	0	1	2	3	4	5
31. 혼자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난관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다.	0	1	2	3	4	5
32. 평상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의존적인 사람인 거 같다.	0	1	2	3	4	5
33. 나는 세상살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0	1	2	3	4	5
34. 일상 생활에서 내가 내리는 판단은 믿을 수 없다.	0	1	2	3	4	5
35.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내게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0	1	2	3	4	5
36.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0	1	2	3	4	5

37. 언제라도 자연적, 범죄적, 경제적 또는 의료적으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느낀다.	0	1	2	3	4	5
38. 나는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할 것 같아 걱정이 다.	0	1	2	3	4	5
39. 가진 돈을 다 날리고 알거지 신세가 되면 어 떡하나 걱정된다.	0	1	2	3	4	5
40. 의사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지만 내 몸에 심각한 병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0	1	2	3	4	5
41.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부모님 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	0	1	2	3	4	5
42. 부모님과 나는 각자의 생활과 문제들에 서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0	1	2	3	4	5
43. 사소한 것까지 같이 나누지 않으면 부모님과 나는 서로에 대해 배신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	0	1	2	3	4	5
44. 나 스스로의 삶을 살기보다는 부모님이 내 삶 을 대신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0	1	2	3	4	5
45. 나는 부모님과 너무 뒤얽혀 있어서 나라는 사 람이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 말 헷갈릴 때가 많다.	0	1	2	3	4	5
46.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문제만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0	1	2	3	4	5
47.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 으로든지 양갈음이나 거부를 당할 것 같은 기 분이 든다.	0	1	2	3	4	5
48.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양 보할 수 밖에 없다.	0	1	2	3	4	5
49. 늘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라왔기 때문에 정작 스스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0	1	2	3	4	5

50. 사람들에게 내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0	1	2	3	4	5
51. 가까운 사람들은 결국 내가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0	1	2	3	4	5
52. 나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	0	1	2	3	4	5
53. 나는 타인을 배려하는 일로 너무 바빠서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다.	0	1	2	3	4	5
54.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의 문제에 귀기울여주는 편이다.	0	1	2	3	4	5
55. 다른 사람들은 내가 타인을 위해서는 많이 일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충분히 일하지 못한다고 본다.	0	1	2	3	4	5
56. 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0	1	2	3	4	5
57. 타인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당황스럽다.	0	1	2	3	4	5
58. 나는 온정적이게 되는 것과 자발적이게 되는 것이 힘들다.	0	1	2	3	4	5
59. 나는 내 자신을 너무 통제해서 사람들은 나를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	1	2	3	4	5
60. 사람들은 나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본다.	0	1	2	3	4	5
61.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0	1	2	3	4	5
62.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충분해” 라는 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0	1	2	3	4	5
63. 나는 성취하고 일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는다고 느낀다.	0	1	2	3	4	5
64. 나는 나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0	1	2	3	4	5

65. 나는 쉽게 의무에서 해방될 수 없고 내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	0	1	2	3	4	5
66. 내가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할 때 “안돼” 또는 아니)라는 대답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0	1	2	3	4	5
67. 나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제한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0	1	2	3	4	5
68. 강요를 당하거나 원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면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다.	0	1	2	3	4	5
69. 나는 사람들이 따르는 통상적인 규칙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0	1	2	3	4	5
70.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가치있다.	0	1	2	3	4	5
71. 지루한 일들은 끝까지 참고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0	1	2	3	4	5
72. 목표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 버린다.	0	1	2	3	4	5
73. 먼 훗날의 목표를 위해 눈앞의 만족이나 즐거움을 참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0	1	2	3	4	5
74. 신나거나 즐겁지 않은 일은 특이 되는 일이라도 참고 하기가 힘들다.	0	1	2	3	4	5
75. 나는 거의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지켜나갈 수 없다.	0	1	2	3	4	5